출장보고서

일본 중소기업 복지실태 및 관련 정책 벤치마킹

2018. 7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일본 중소기업 복지실태 조사 및 관련 정책 벤치마킹 출장 보고

[보 고 순 서]

Ⅰ	출장 개요
Ⅱ	주요일정 및 논의내용
Ⅲ	일본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
Ⅳ	일본 중소기업가 동우회

Ⅰ 출 장 개요

1. 출장 목적

○ 일본 중소기업 복지실태 및 관련 정책 조사를 통해 대·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발전 방향 도출

2. 출 장 국 : 일본(도쿄)

3. 출 장 자 : 김재령 대리 * 중기부 사무관 2명, 중기연구원 1명 동행

4. 출장기간 : '18. 6. 10(일) ~ 6. 13(수), 3박 4일

일 자		주 요 일 정	비 고
6월 10일	김포	- 출국(동경/하네다, 오후)	항공 이동
제1일 (6/11, 월)	동경	-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방문 - 후생노동성 방문	
제2일 (6/12, 화)	동경	- 일본 중소기업가 동우회 방문 (中小企業家同友会全国協議会)	
제3일 (6/13, 수)	동경	- 일본 전국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 방문 - 귀국(김포, 저녁)	항공 이동

◈ 출장 현지 지원자

ㅇ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오학수 박사

- Tel. (03)5991-5194
- Mobile : 080-5080-5194
- Email : hs.oh362@jil.go.jp

II 주요일정 및 논의내용

1. 일본 노동정책연구·연수기구(JILPT) 방문 (6.11일 오전, 오학수 박사 면담)

ㅇ 일본 내외의 노동문제,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, 그 성과를 이해당사자 등에게 연수시킴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JILPT 방문

ㅇ JILPT는 2003년 설립되었고, 일본 노동정책연구소, 노동대학교, 법인 본부 사무국 3자의 공동 노력으로 일본 노동정책을 선도

* JILPT의 설립으로 1990년 설립된 일본노동연구기구 해산

ㅇ JILPT 오학수 박사를 면담하여 일본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실태와 임금, 복지수준 격차에 대한 현황을 소개 받음

2.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(6.11일 오후, 요코야마 야스히로(横山靖浩) 면담)

ㅇ 일본 노동후생성 고용환경·균등국 근로자 생활과 근로자복지사업실을 방문하여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관련 정책 및 복지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등을 조사

ㅇ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 동향과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균형 관련 통계에 대한 정보를 듣고, 일본과 한국의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비교

3. 일본 중소기업가 동우회 전국 협의회(중동협) 방문 (6.12일 오후)

ㅇ ‘일본 중소기업가 동우회 전국 협의회’를 방문하여 대·중소기업 간 복지수준 격차 해소와 관련된 동우회의 역할 조사

– 중소기업가 동우회의 설립목적, 역할 및 주요활동에 대한 소개

– 청년층 등 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인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노력

ㅇ 일본 중소기업의 복지수준 실태에 대한 조사

– 일본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현황 소개

– 구인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의 차별화 된 복지 소개

4. 일본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서비스센터 방문 (6.13일 오전)

ㅇ 일본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복지시설 견학 및 서비스 조사

– 복지 서비스센터의 설립 목적,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 조사

ㅇ 대·중소기업 복지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일본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서비스센터 역할 및 운영상의 애로점 조사

Ⅲ 일본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

1.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 개요

ㅇ 설립배경

- 일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엄존하는 법정외복지의 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준공공복지 방식으로 근로자복지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센터가 1988년에 설립

ㅇ 연혁

- 동 센터는 본래 1980년대 등장한 “근로자상호공제제도”에서 출발되어 1990년대에 재단법인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 체계화된 형태로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,

-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지역차원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

ㅇ 역할

- 동 센터는 지불능력이 제한된 중소기업들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법정외복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·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

2. 주요 사업

ㅇ 동 센터는 회원으로 가입된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사업 및 관련 이벤트·정보를 제공하는 한편, 체육/여가시설·의료기관·금융기관들과 제휴하여 가입 회원들이 저렴한 할인 조건으로 이용

ㅇ 또한,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원, 노동자 및 가족 건강 증진 유지, 긴급생활자금 공제 급부, 생애학습지원, 생애생활설계지원, 생활자금 융자 알선, 자택 융자 알선 등과 같은 복지 사업을 수행

<표> 일본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

사 업 명	주요 지원내용
중소기업 재직자의 생활안정사업	회원과 그 가족의 경조사(결혼, 출산, 입학 등의 부조금) 및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급부사업(금융기관과 제휴하여 교육, 화재 등 불시의 지출을 위한 저리, 간편한 생활자금 융자 알선)
건강유지증진사업	종합건강검진, 생활습관병 예방검진의 수검, 각종 스포츠 시설 제휴, 세미나와 강습회 개최 등
여가활용사업	각종 레크리에이션, 투어, 스포츠대회 등 이벤트 기획 및 알선 각종 레저 시설 및 숙박시설 등과의 제휴를 통한 할인이용 등
자기계발사업	생애학습 및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한 원조 컴퓨터 강좌, 매너 교실 등 문화교양 강좌 실시 문화센터 이용 조성
노후생활안정사업	정년퇴직 전후의 상담 및 지도, 연금이나 은퇴 생활에 관한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퇴직공제제도 등의 보급 촉진 개인연금사업
재산형성사업	재산형성제도 보급, 주택알선 융자 등 재산 형성을 위한 정보 제공, 상담 실시
복지사업	자원 봉사자 정보 제공·사업 실시(육아 지원, 개호 지원)

〈그림〉 일본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의 주요 서비스

2.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 구조와 운영(발언 내용 정리)

○ 센터의 사업 활동과 운영은 회원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의해 출연되는 회비와 참가부담금, 그리고 지방자치단체*로부터 인건비와 사무집행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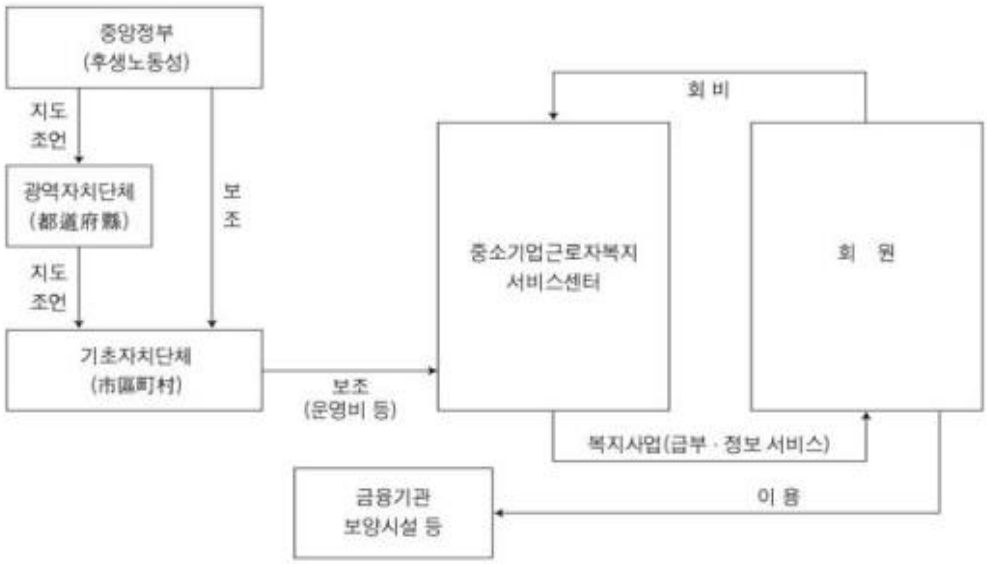
* **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2010년 중단**

○ 현재 일본에는 **340여개의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가 설치**·운영되고 있으며, **입회비는 300～400엔**

○ **월회비는 전국평균 월 650엔 수준**이며, **사업주가 부담한 회비*는 세법상 필요 경비로 손금 처리**되고 있는 상황

*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전원이 센터에 가입하고 사업주가 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경우

[그림] 일본의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센터 구조와 운영체계



○ **센터가입대상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**이며, 지역센터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도 이용 가능한 규약을 가지고 있기도 함

○ **각 지역에 설립된 센터는 사업주단위로 가입**하며, 각 사업 운영 및 정기조사, 특정 이벤트 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역센터 스스로 회원 확대를 위해 노력 중

○ 운영상 문제점

– 센터는 지자체로부터 관리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, 그 마저도 매년 감소 중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

* **센터 운영비 구성비율의 평균** :
지자체 지원 18% / 회비 30%대 / 나머지는 사업수익(연간 약 9천만엔)
* **센터별 회원수 평균 : 약 6천명**
* **센터별 직원수 평균 : 약 6명**

– 어떻게 하면 센터소속 회원수를 증가시킬지가 현안

* 센터 가입 근로자 수 : **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5%**

〈관련 QnA〉

▲ **복지센터의 회원수가 중소기업 전체근로자수의 5%인 이유?**

· **(답변)** 회원은 근로자 개개인이 회원이 아니라 사업주가 되고,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가 전체근로자수 중 5%임

· 가입되어 있는 기업의 평균 근로자수는 6.5명, 10명 미만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낮은 수준은 아님

· 상공회의소 등 복지센터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, 지역에 따라 복지서비스센터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음

▲ **왜 10명이 넘는 기업들은 가입을 안하는 건지?**

· **(답변)** 100명 이상 기업등 일정규모가 넘는 기업들은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더 비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

3. 전국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 구성과 운영(발언 내용 정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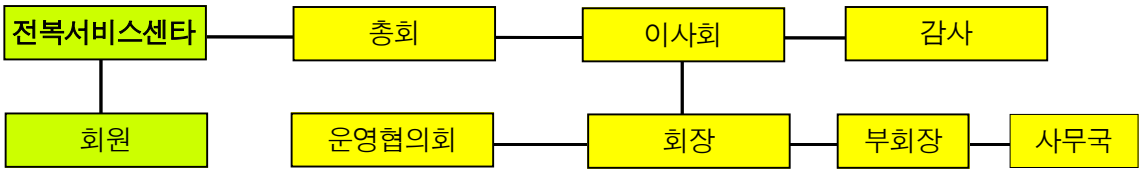
ㅇ 일본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센터들은 서로 연합하여 중소기업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(이하 "전복(全福)")를 설치

ㅇ 전복(全福)은 일본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있는 지역별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, 공제·상조회 등의 연합체이며,

ㅇ **전복(全福)** 정회원의 자격은 지역별 센터, 공제·상조회이며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는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, **회원은 130만명**

* **전복(全福)**에 **가입된 센터**는 전체 **340여개 지역센터 중 200여개**

[그림] 일본 전복(全福)센터 조직구성



〈표〉 전복(全福) 회원의 자격 및 회비(1년 단위)

구 분	정회원		준회원
자 격	지역별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, 공제·상조회		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
회 비 (회원 수 기준)	20,001명 이상	180,000엔	5만엔
	10,001 명 ~ 20,000명	140,000엔	
	5,001명 ~ 10,000명	100,000엔	
	3,001명 ~ 5,000명	80,000엔	
	1,001명 ~ 3,000명	60,000엔	
	1,000명 이하	30,000엔	

○ **전복(全福)은 전국 각지의 금융기관 및 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**하여, 회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음

○ 위와 같은 사업방식으로 센터는 **대규모의 회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저렴한 가격우위를 확보**하고 있으며, 전복(全福)은 **다수의 회원을 협상카드로 활용**하여 서비스 또는 **상품제공 의사를 가진 기업과 저가의 공급계약을 체결**

○ 공급계약이 체결될 경우, 전복(全福)은 책자,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의 종류, 원래의 가격과 할인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, 회원은 할인가로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

〈관련 QnA〉

▲ **복지센터의 수익 창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?**

· **(답변)** 사업수익을 내기 위해 영화관 티켓, 테마파크, 레스토랑 등 티켓 대량구매 방식을 활용

· 예를 들면 **1만원 인 티켓을 대량구매로 9천원에 회원에게 지급하고 8천원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구조를 통해 수익**내고 있음

▲ **340여개 센터중 200여개가 전복(全福)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?**

· **(답변)** 복지센터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독립운영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직접운영하거나, 공제사업 등만 할 수 있는 여건밖에 되지 않음

▲ **전복(全福)과 지역센터의 역할 구분은?**

· **(답변) 전복(全福)센터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**하여 사업하고 있음

· 지역센터의 규모가 작아 못하는 사업을 전복(全福)센터가 하고 있음
예를 들면 전국호텔 체인은 각 지역센터에서 제휴가 불가
규모가 엄청 큰 테마파크의 경우 전복(全福)센터에서 계약을 맺어서 지역센터에 분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

· **전복(全福)센터**에서 **지역센터에 운영효율화를 제공**하고 있음. **예를 들면 홈페이지 기본틀을 저렴하게 제공**하고 있고, **회원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제공** 중

4. 정부 지원(발언 내용 정리)

ㅇ 1988년 복지센터 설립 후 국가가 관리운영비 보조를 해왔으나 2010년 폐지되었는데, 그것은 2009년 일본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 결정 및 법률에 의해 이루어짐

ㅇ 폐지 당시 일본 정부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으로만 정부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채를 지속 발행하는 중이였으며,

ㅇ 국회(민주당)의 2009년사업구별 정책(법에 의거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필요한 사업만 지원금을 지원하는)이 추진됨

ㅇ 복지센터 관리운영비의 재원을 고용, 산재 등 노동보험으로 사용하였었는데, 2006년 노동보험 비용의 본래 사업취지대로 쓰도록 하는 정부 제도개편 방침에 따라 폐지되었으며.

ㅇ 복지서비스센터의 본래 정책취지도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었고, 다만, 그 설립과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도로 한정됨

5. 복지서비스센터와 민간서비스와의 차별점(발언 내용 정리)

ㅇ 서비스센터 기능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경조사업과 같은 다른 민간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음

ㅇ **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가능**한 점이 다름

* 복지센터의 월 평균이용 요금은 650엔, 만약 민간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~3천엔 정도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

ㅇ 각 지자체가 **복지서비스센터**를 통해 **각 지역 산업진흥 촉진 역할**로도 활용되고 있음

- 대부분 가입 사업주를 보면 해당 지역에 근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, 이를 통해 사업주가 가입시 도움이 되는 게 있음

- 특정 메뉴가격이 800엔인데, 손님이 지역 음식점에 할인권을 제시하면, 500엔에 이용하고 나머지 300엔은 센터에서 부담하며, 이러한 할인을 통해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음

6. 시사점

ㅇ 일본은 지역에 복지지원센터가 먼저 설립되고, 전복(全福)이 설립

-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지원센터 도입 방안 연구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먼저 검토하는 한국 실정을 반영할 필요

  * 예컨대, **한국은 설립초기 전국단위 온라인 거점 사업추진**을 우선 검토

- 사업구체화 후 수요조사를 토대로 지역센터 설립 추진

ㅇ 설립효과와 수요확대를 위해 **기존 민간·공공 복지사업자와 차별성 필요**

- 일본 복지서비스센터의 회원수는 대상근로자의 5%에 불과

- 따라서 센터가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필요

  *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처럼 일부 서비스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 제공

ㅇ **지역산업 활성화 역할**로 활용

- 일본은 복지서비스센터에 가입한 지역사업주가 고객 유치 등을 위해 할인쿠폰 발행 등을 하거나, 지역특산물을 복지 센터회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

- 이에, 지역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복지지원센터와 지역의 외식업, 레크레이션 시설 등 지역 중소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사업연계 추진을 검토할 필요

  * 지역 음식점, 레크레이션 시설 등 지역 중소기업과 제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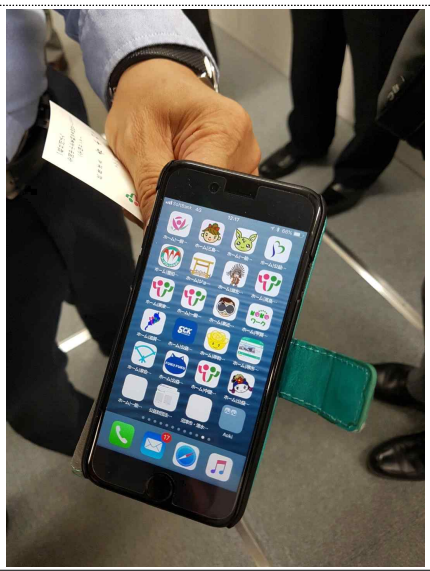
ㅇ 지속가능사업과 안정성을 위해 근거법 필요성 검토

- 일본의 경우 센터운영관리비 지원이 중단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

- **지원중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근거법이 없다는 것*이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지원관련 근거규정 마련 필요**

  *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통달(행정지침)만 존재

참 고 전국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 방문 사진



Ⅳ 일본 중소기업가 동우회

1. 일본 중소기업가동우회 개요

ㅇ 중소기업가동우회(이하 "동우회")는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설립되어 있으며, 회원은 4만 6천여개 기업으로 구성

* 중소기업가 동우회 창립 : 1957년 4월 26일(현 도쿄 중소기업가 동우회)

* 전국 협의회의 결성 : 1969년 11월 17일

ㅇ 동우회 회원기업의 근로자수는 주로 10인 전후로 형성되어 있으며,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

ㅇ 회원가입은 사회적 위치, 업종, 기업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의 번영을 목표로 하고 중소기업 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

ㅇ (동우회 목적) ▲ 좋은 회사를 만들기 ▲ 좋은 경영자가 되기 ▲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기

ㅇ (동우회의 재정) 입회금, 회비를 중심으로 한 회원의 수입

ㅇ 주요 활동

- 신입 사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동구인 활동
-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위한 정책 건의
- 중소기업 경영환경 조사
- 경영방침 등 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 운영 등

  * 연간 1,500명 정도 참여해서 졸업

2. 동우회 회원기업의 복리후생 현황(발언 내용 정리)

ㅇ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연금 등 법정 복지가 있으며 법정외 복지는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

ㅇ 일본 대기업의 경우도 직접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금전지원은 별로 없고, 휴양지를 만들거나 계약 등을 통해 할인해서 제공

ㅇ 반면,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부족, 직원회(직원간 친목 등 위한 자연형성 조직) 등 활동에 돈을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

ㅇ 일본 중소기업은 가족적 경영(종신고용, 연공임금 등)에 대해 아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

〈관련 QnA〉

▲ **귀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프로그램 중에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은?**

· **(답변)** (직원 19명 야마타 제작소 대표이사) 사원 여행은 2년에 한번, 비용은 회사가 100% 지원

· 이 외에는 직원회에서 신입이 들어오는 경우 바비큐 파티, 볼링, 스포츠 대회 등을 여는데, 이와 관련 비용은 직원회비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우리 회사는 식사비용을 보조

3. 일본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력현황(발언 내용 정리)

ㅇ 일본 전체 기업의 97%, 전체근로자수의 70%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음

ㅇ 여성 정규직 한 명당 자녀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관련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은 0.42명 20명 이하 중소기업은 0.92명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이 유연한 근무제도를 제공하여 자녀를 더 키우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볼 수 있음

ㅇ 일본 대기업와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, 생애임금*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

* 생애임금 : 근로자가 전 생애 동안 받는 것으로 추산되는 임금액

ㅇ 일본 청년들도 휴가를 내기 어렵고, 잔업이 많아 중소기업을 선호하지는 않음

4. 시사점

ㅇ 일본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은 대기업과 큰 차이는 없으나, 생애임금은 큰 차이가 있고, 휴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고, 잔업이 많아 중소기업을 선호하지는 않음

ㅇ 이러한 **구인난 타개를 위해** 일본은 지역중소기업단체(중소기업가동우회)를 중심으로 **수시로 공동구인 채용 활동을 전개중**

*** 해당지역 합동기업설명회를 연중 수시로 개최하고 있음(jobway.jp)**
⇒ 수평적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참여의지 중요

ㅇ 이에,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인력채용을 위한 자발적인 공동구인 활동(협동조합, 중소기업자단체 등 활용)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

〈관련 QnA〉

▲ **한국은 7월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이 될 예정.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 최장시간 근로 중. 일본도 잔업이 많아 중소기업을 기피한다는데 일본 중소기업의 잔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?**

· **(답변)** 일본의 경우는 소정외 월 45시간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고 법에는 없으나, 현재 정부에서 법에 명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음

· 실제 잔업시간은 기업에 따라 상당히 많은 차이. 잔업이 없는 경우도 있음. 사람 채용에 있어서는 잔업이 없는 경우가 유리

▲ **정부 ·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지원해준 것 중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?**

· **(답변)**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, 최근에 출산휴가, 육아휴직은 휴가를 내려고 하면 낼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,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음(10년 전만해도 임신을 하게 되면 퇴직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음)

· 육아휴직 기간은 임금의 60%는 국가가 지원

▲ **일본 고졸, 대졸 취업률 100%가까이 되고 있고, 점점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텐데, 우수한 인력채용을 위해 중소기업들은 어떠한 노력 하고 있는지?**

· **(답변)** 구인난 가운데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, 회원사들을 통해 신졸 채용을 하기 위해 **<u>지역별 동우회를 통한 공동구인 활동을 하고 있음(jobway.jp)</u>**

· 또한, 좋은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, 중소기업이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임을 알려서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

· 지역에 젊은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아 지역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활동으로서 중소기업에 좋은 인재가 취업하도록 노력 중

참 고 중소기업가동우회 간담 사진